공주 원도심 문화탐방 ‘공주 원도심에서 미래를 만나다’

김남웅 _ 충남역사박물관 연구원

공주와 만나다

발달된 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은 어디든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한다. 이에 사람들의 일상적 세계관은 크게 넓어지고 자신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방문하는 낯선 공간에 대한 신비로움과 무게감은 허물어진다. 결국 우리는 물리적 편리성에 취해 새로운 공간과 맺는 낭만적 혹은 감성적 기행의 가치를 지각하지 못한 체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의 관광이란 찾아갈 장소로부터의 초대 없이 남들이 가보거나 유명한 곳을 가보는 것에 불과한 비일상적 이동과 소비, 휴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공주를 찾은 사람들의 방문은 무엇인가 달라도 아주 다르다. 교통비와 점심 그리고 분위기 좋은 찻집을 포함한 문화기행을 참가비 ‘만원의 행복’이란 슬로건 아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공주로부터 초대 받고 공주의 주인인 공주출신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길을 걷는다. 이는 현대인들이 여행 중에 흔히 지나치는 초대받는 기쁨과 방문하는 설렘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이번 방문의 특별함은 유유자적, 많은 이들이 몰랐던 공주 원도심의 참모습을 배경으로 여유로이 추억을 만든다는 점이다.

공주의 어제를 느끼다

먼 곳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잠에서 깨어 채비하고 차를 달려왔을 손님들과 이번 탐방의 시작지인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아침의 상쾌함이 오후에 찾아올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었고 본격적인 원도심 나들이에 앞서 충남역사박물관 교육실에서 최병옥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공주 원도심' 이라는 탐방 오리엔테이션으로 하여금 공주 원도심의 역사를 사진을 통해 알아가며 공주의 아침을 열었다.

공주는 백제의 수도가 지금의 부여로 옮겨지기 전까지 두 세대가 넘는 6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제의 도읍이었던 시절을 시작으로, 1602년부터 1932년 까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충청도와 충청남도의 중심지로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이후 충주로부터 공주로 이전된 충청감영(1602년)은 공주의 흥망성쇠의 역사와 이야기를 원도심 이곳저곳 생생하게 남겨놓았다.

하지만 공주 신도심 개발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집중된 관심으로 공주 원도심이 품고 있는 어제의 기억은 등한시 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 진행된 공주 원도심 탐방은 서울 · 경기 지역에서 방문한 숲문화해설사회와 군인가족모임 분들과 함께,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공주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문화유산과 만나 대화하는 올해 첫 여정이었다.

참가자 집결(충남역사박물관 앞)

원도심 탐방 오리엔테이션(충남역사박물관교육실)

예수가 사랑한 고을, 공주

이번 원도심 탐방에는 충남역사박물관 송현정, 이상균 연구원이 인솔하고 최병옥, 장길수 문화관광해설사가

원도심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탐방 첫 방문지로 도착한 곳은 박물관 고개 뒤편 영명 중 · 고등학교이다. 1904년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샤프 목사가 1905년에 '명설학교' 라는 교명을 걸고 정부의 인가와 제대로 된 시설 없 학생들에게 근대교육의 기회를 열어준 곳이다. 하지만 이듬해 1906년, 샤프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위기를 맞지만 그 해 미국인 선교사 우리암(宇利巖, Frank. E. C Williams) 목사가 다시 '중흥학교' 라는 교명으로 학교를 열어 교육을 재개하고 발전시키려 힘썼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1909년에 비로소 '영명학교'라는 교명으로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게 된다. 1회 졸업생 황인식(초대 충남도지사)과 2회 졸업생 조병옥(미군정 경무국장, 민주당 대통령 후보)은 사회의 훌륭한 재목이 되어 학교를 빛냈다. 또한, 유관순 열사가 미국인 여성 선교사 사애리시 부인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편입하기 전까지 공부한 곳으로 열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학교이다.

이후 1940년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 탄압으로 1942년에 폐교되었으나, 1949년 동문들의 노력으로 복교되어 이후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있는 우리암 목사, 조병옥 박사, 유관순 열사의 흉상 앞에서, 그동안 몰랐던 유관순 열사가 학교를 다니게 된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최병옥 문화해설사의 해설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했다.

다시 학교운동장 뒤편으로 잘 정비된 오솔길을 따라 올라 산 중턱에서 옛 선교사 가옥(등록문화재 233호)을 찾았다. 그저 모르고 길을 오르다 마주치면, 어린 시절 모험심에 작은 산을 넘어 처음 가보는 마을을 발견한 것처럼 희열을 느낄 만큼 반가운 곳이다. 그리고 조금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한적하게 공주 원도심의 전망을 간직하고 있다. 이 가옥은 서양식 건축물로 1919년부터 1940년에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충남지역 감리교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주역인 아멘트 선교사가 지냈던 사택으로 추정된다. 이곳을 통해 기독교와 근대식 교육 및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가옥의 위치와 형태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의 문화가 한 곳에 공존하는 특수한 문화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1950년대 개인소유가 되어 공주사범학교 여자 기숙사로도 쓰였고 집 앞에는 재래식 냉장고와 옛 우물자리, 야외 화장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옛 선교사 가옥 아래로 굽이굽이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니 다시 정겨운 옛 마을 골목길이 우릴 반긴다. 이미 달구어진 초여름 날씨에 물총 쏘며 노는 아이들에게 방문객들은 넉살좋게 물총 물을 빌려 손을 적신다. 그렇게 각자 떠올리는 골목의 추억에 미소 지으며 한 동안 걸어 항일운동의 현장이자 서양문물의 통로였던 공주제일교회(등록문화재 472호)에 닿았다.

1903년 초가 2동을 시작으로 1931년에 지금의 고딕양식의 교회가 되기 전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제일교회 부목사님이 교회 신관 1층 역사자료실에서 직접 사진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다. 해설 중 흥미로웠던 이야기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예배공간의 분리였다. 지금이야 가족이 한 예배공간에서 함께 예

배하지만 기독교 정착 초기에는 성별에 따른 한국전통적 공간 구별 관념이 함께 공존했다고 한다. 커튼을 가운데 두고 예배 중에는 서로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 장소를 직접 상상해보며 우리 조상들이 근대 문물과 종교를 받아들였던 순간의 문화적 융합과 온고지신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신 예배당 옆 옛 교회건물은 원형을 살려 그 시절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박물관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목사님에 이르길 옛 예배당 복원 중 옛날 UN을 통해 유럽, 미국 등 각지에서 원조로 보내준 시멘트 포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역시나 원형을 지키며 옛 지붕을 유지하며 개 · 보수하여 얻은 값진 유물이기에 의미가 컸고 차후 전시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테인글라스를 거쳐 따뜻하고 잔잔하게 전해지는 햇빛이 교회와 방문객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있던 곳의 가치와 의미를 은은하게 밝혀주었다.

영명 중 · 고등학교

옛 공주 중학동 선교사가옥

옛 공주제일교회

졸졸졸, 제민천 물소리를 들으며 노닐다

제일교회를 나와 제민천 물길을 따라 걸으니 슬슬 밀려오는 허기에 꼬르륵 소리는 제민천 물소리와 장단을 맞춘다. 충청감영터, 미나리꽝, 버드나무 많았던 제민천은 그 추억만 머금은 채 말없이 흐르지만 오랜 세월 공주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흔적은 그 주변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점심으로 선택한 보리밥은 제민천의 풍경, 분위기와 함께 비벼져 한 끼 정겹고 건강한 식사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제민천 물소리 들리는 와중에 다들 오전 동안 걸어온 길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끌벅적 나눈다.

점심식사 후 첫 오후일정으로 제민천길에서 반죽동 골목으로 들어가 옛 공주읍사무소였다가 지금은 공주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 되어 있는 '공주역사영상관' (등록문화재 433호)으로 향했다. 1920년대 공주의 행정적 중심지였던 구읍사무소 일대 반죽동은 법원, 경찰서, 우체국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옛 읍사무소 건물은 읍사무소로 사용되기 전 충남금융조합연합회관으로 처음 지어졌다고 한다. 건물 정면 네 개의 돌기둥은 그리스 건축

양식을 느낄 수 있는 근대적 건축형태로 공주에 위치한 근현대 건축물의 다양성을 더욱 강조한다.

전시된 공주의 옛 사진을 보며 더위를 피하고 조금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민천길 골목에 위치한 찻집 '루치아의 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인부부의 참신한 개 · 보수를 거쳐 대중이 뽑은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한 이 한옥형 카페는 많은 입소문을 타고 공주의 대표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즈넉하고 친숙한 한옥 공간에서 정성 가득한 차를 마시며 듣는 충남 제일 갑부 김갑순의 일화는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덕을 베푸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해준다.

차 한 잔의 여유로 재충전 된 기운으로 나태주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풀꽃 문학관으로 향했다. 오전부터 지금껏 공주 원도심 역사의 증거물을 차근차근 둘러보았다면, 이 장소는 공주가 자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학인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기에 더욱 색다른 의미를 지닌다.

시인은 부재중이었으나 그의 부인이 계셨고 특별히 충남역사박물관을 통해 공주를 찾은 분들에게 나태주 시인의 대표 25시 손바닥 책을 나누어주셨다. 탐방 전날 밤 우연히 읽게 된 나태주 시인의 '선물', 정말 나를 위한 선물이 되어 내 손바닥 위에 놓였다. 옛 일본 헌병대장 가옥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가옥의 이색적인 구조와 분위기가 운치를 더했다. 어느덧 오늘 탐방의 마지막 행선지로 향한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문학관 기념품들이 신난 듯 덩실거린다. 황새바위에 도착하니 타 지역 성당에서 온 버스들이 즐비하다.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인 황새바위 순교유적(기념물 178호)은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한 곳이다. 충청감영이 위치한 행정거점지역이었던 공주는 사법권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처형에 관한 판결과 집행의 장소 또한 자연스럽게 공주가 되었다. 공주의 밝고 어두운 역사를 동시에 품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을 것이다.

직접 해설을 해주신 성지 담당 신부님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이 다른 흉악범들의 처형과 함께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신이 뒤섞여 유골을 찾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후 순교자들의 고향에서 흙을 가져와 순교탑 지하에 있는 석관(石棺)에 보관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라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겪게 된 모진 고난에도 자신들의 신앙적 의지를 지켜낸 민중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공주 옛 읍사무소

지역 찻집(루치아의 뜰)

황새바위 순교탑 지하

공주와 맺은 특별한 인연

공주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충남역사박물관이 추진하고 있는 '유유자적, 공주 원도심 탐방'은 지역의 참된 가치를 알리는 역할과 그곳의 알려지지 않은 먹거리, 즐길 거리, 추억거리를 공유한다. 또한, 무엇보다 공주 원도심을 찾은 사람들의 방문을 단순한 하루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문화기행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한다. 이점에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흥미롭고 깊은 해설을 해주신 장길수, 최병옥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의 역할에는 항상 빛이 난다. 더불어 공주시의 살림살이로 제공되는 교통편(버스)과 해설사 선생님들의 무료 안내 및 해설은 공주에서의 값진 만원의 행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충남역사박물관에서 가진 총 12장의 초대장 중 오늘의 한 장이 가진 의미는 어릴 적 세숫물을 받기 위해 수동식 펌프에 넣은 마중물처럼 적지만 크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주를 방문했던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주에 볼게 너무 많네."라는 말을 연발했다. 하루라는 시간동안 공주 원도심의 매력 중 일부를 맛보았다는 사실에 모두 즐거워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분명 그 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공주에서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특별했던 시간으로 남들에게 자랑될 것이다.

특별함은 남들이 모르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비록 오랜 세월을 거쳐 예전과 같은 역동적인 큰 고을의 모습은 빛 바래가지만 그 어제의 기억을 담은 원도심 문화유산들은 제민천과 공주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앞으로 공주를 다시금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더해질 공주 원도심의 오늘일 것이다. 찾아간 발걸음이 공주 원도심 이곳저곳에 생생히 남을 것이고 그들의 기억과 추억 한편에 공주 원도심이 자리했으리라 기대한다.